

청계천 조류생태 모니터링과 방향

劉正七

경희대학교부설 한국조류연구소장, 생물학과

I. 왜 청계천 생태계가 보전되어야 하나?

- 인간의 가치판단 기준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문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⇒ 새들이 사는 잘 보전된 도시 하천생태계보전지역의 유무는 다음 세대의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.
- 청계천생태계는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연환경 중 하나이다.

II. 청계천에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조사구역 및 내용 :

조사지점: 청계광장 - 청계천과 중랑천 합류부

- ① 조사 1지점 : 청계광장-오간수교 (약 3km)
- ② 조사 2지점 : 오간수교-고산자교 (약 3km)
- ③ 조사 3지점 : 고산자교-중랑천 합류부 (약 3km)

III. 청계천 조류서식지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모니터링 및 관리 방향

- 각 중요 연구지점 선정 후 매월 또는 계절별로 종별, 개체수 변동 모니터링 필요
- 초기 3년간의 수변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조류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.
- 관리방안이 마련된 후 조류서식지로서 하천의 기능이 회복되고 있는지 아래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.
 - ⇒ 조류의 취식지로서의 기능 (식생과 연관하여 조사)
 - ⇒ 조류의 번식지로서의 기능 (번식 유류와 번식환경 조사)
 - ⇒ 봄, 가을 통과조류의 휴식지 및 취식지로서의 기능
 - ⇒ 겨울철새의 월동지로서의 기능
- 중랑천 조류서식지가 확장·연결 지역으로 서식지를 관리하여야 함
- 중랑천이나 한강본류의 조류서식지에서 일시적으로 방해요인(인간의 간섭, 이상 기후변동 등)이 발생했을 시 일시적 피난처 제공.
- 조류가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계천 하류와 중랑천이 만나는 곳의 하천의 폭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한다.

IV. 청계천에는 중랑천 조류를 유치하여야 한다.

□ 중랑천: 겨울철 약 21여종, 4,700개체가 서식

□ 청계천의 조류: 11월 13일과 30일 두 번의 조사.

11월 13일: 10종 532개체 (이 중 고산자교-중랑천 합류부: 7종 390개체)

11월 30일: 16종 1,240개체 (이 중 고산자교-중랑천 합류부: 16종 1,240개체)